

2025. 7. 5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

주거환경개선과장

임창섭

2133-7240

안심집수리팀장

변종진

2133-7259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  
(메뉴)

<https://jibsuri.seoul.go.kr>

## 취약가구 주택, 장마철 걱정없도록... 서울시 '안심집수리' 469가구 36억 지원

- 시, '25년 안심집수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, 상반기 469가구 최종 선정
- 노후 저층주택 안전·에너지 개선 36억 3천만 원 지원...하반기 추가 선정 예정
- 단열·방수·창호·설비, 성능개선 등 집수리 지원으로 주거 취약가구 복지 개선

-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, 취약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'안심집수리'의 지원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 3천만여 원 보조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.
- '안심집수리 보조사업'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택에 총 공사비의 80%, 최대 1,200만 원까지 지원한다.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·방수·창호·설비 등 수리와 침수,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다. 노약자를 위한 단차 제거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.

-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하고, 총 36억 3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'24년에는 취약가구, 반지하 등 저층주택 1,028건에 총 77억 9천 3백만 원을 지원해 취약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했다.
-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. 시공업체로부터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했다.
- 아울러, 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개량을 위해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'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사업'을 통해 올 상반기에 34건, 12억 5백만 원을 지원했다.
- 시는 하반기에도 추가 심의를 거쳐 안심집수리 보조사업과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.
-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만큼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며 “집중호우와 장마철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□ 2024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정비 전후



창호 정비 전



창호 정비 후



창호 정비 전



창호 정비 후



주방시설 정비 전



주방시설 정비 후



옥상 방수 전



옥상 방수 후